



# 전 세계 감염병 발생 동향

## Global Infectious Disease Outbreak Update

### 요약

#### 1.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방글라데시 Nipah virus infection in Bangladesh

##### 방글라데시의 '26년도 첫 번째 니파바이러스감염증 환자 발생

- 방글라데시 라지샤히주(Rajshahi Division) 나오가온 지역(Naogaoan District)에서 방글라데시의 '26년 첫 번째 니파바이러스감염증 확진 사례가 발생함
  - '26.1.21. 증상 시작된 후 1.27. 의식상실 및 1.28. 사망함. 이후 1.29. 니파바이러스 감염 확진 보고됨
  - 확진자는 특별한 여행력은 없지만, 발병 전에 생 대추야자수액 섭취력이 있음
  - 확진자의 접촉자 총 35명을 파악하여 모니터링 중이며 그중 유증상자 6명에 대한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됨
- 방글라데시에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01년에 처음으로 보고된 이후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음 (총 348명 발생 및 250명 사망, 치명률 72%). 시기적으로는 12월~4월, 지역적으로는 중부 및 북서부 지역에서 주로 발생함
- 방글라데시 보건당국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발생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WHO는 니파바이러스 관련 종합 위험도를 방글라데시, 동남아시아 지역 및 전 세계 수준 모두 '낮음'으로 평가함
- 국내 니파바이러스 감염증 보고 사례 없음. 니파바이러스 감염증 주요 발생 지역인 방글라데시, 인도 등 방문 시 생 대추야자 음료 섭취나 (야생)동물과 접촉하는 행위는 삼가하고, 불필요한 병원 방문 자제와 함께 자주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를 당부함

#### 2. 영유아 분유에서 바실루스 세레우스 독소 검출, 여러 국가 Bacillus cereus toxin in infant formula in multi-country

#####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생성 구토형 독소(세레올라이드)가 영유아 분유에서 검출되어 리콜 실시

- 특정 제조사의 영유아 분유 제품에서 바실루스 세레우스 독소(세레올라이드)가 검출되어 유럽 등에서 리콜 시행 중이며, 해당 제품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소아 위장관계 증상 사례가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영국, 브라질, 홍콩, 싱가포르에서 보고됨
- ECDC는 세레올라이드 오염 분유 제품 관련 지역 내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노출 가능성 '중간~높음' 및 증상 영향 '낮음~중간'으로 평가하고, 특히 1세 미만 아동은 종합 위험도 '중간'으로 판단함. 또한 유럽 식품안전청(EFSA)과 함께 공동 신속유행평가를 추진 중임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바실루스 세레우스 독소 오염 분유 제품은 국내 정식 수입되지 않았으며, 현재 국내 유통 중인 분유 제품을 모두 검사한 결과 세레올라이드가 검출되지 않았음.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은 주로 오염된 음식을 통해 전파되므로 손 씻기, 음식 익혀 먹기, 물 끓여 마시기 등 위생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함

### 3.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영국 Norovirus infection in UK

#### 영국 최근 노로바이러스 발생이 예년 대비 50% 증가

- 영국에서 최근 노로바이러스 활동성이 예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다른 연령대보다 발생 경향이 높고, 병원 내 유행도 절기 초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이번 절기 노로바이러스 검사 양성 보고 건수는('25년 27주~'26년 5주) 총 5,752건으로 직전 5개 절기 동기간 평균(4,600건) 대비 25.0% 증가했고, 최근 2주간('26년 4주~5주) 보고 건수(921건)도 직전 5개 절기 동기간 평균(611건) 대비 50.6% 증가함
- 노로바이러스 유전자 그룹은 GI형(85.4%)이 GII형(14.5%)보다 우세하며, 세부 유전형은 GII.4형(35.8%) 및 GII.17형(20.8%)이 동시 유행하고 있음
- 최근 노로바이러스 활동성이 증가한 것은 다양한 유전형의 동시 유행, 현재 기상 조건, 검사·보고 체계 변화 등의 복합적 작용으로 추정되며, 65세 이상 고령층과 병원에서 발생이 많은 상황을 고려해 취약 계층 내 노로바이러스 확산 방지 조치를 강조함
- 국내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는 '26년 5주 기준 709명으로 예년보다 높은 발생 수준을 유지 중임. 특히 0세~6세 영유아의 비중은 '26년 3주 기준 51.1%로 전주(217명, 39.6%) 대비 11.5%p 증가하여 영유아 및 관련 시설(어린이집, 키즈카페 등)의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함

### 4. 엠폭스, 마다가스카르 Mpox in Madagascar

#### 마다가스카르 '25.12월 엠폭스 최초 발생 후 Clade 1b 유행 지속 중이며, 주변 섬 국가(마요트, 레위니옹, 코모로)로 전파 보고

- '25년 12월 마다가스카르의 최초 엠폭스 발생 보고 후 현재까지 Clade 1b 엠폭스 유행이 지속되어 '26.2.9. 기준 확진자 294명 및 의심 환자 235명이 보고됨. 또한, 주변 섬 국가(마요트, 레위니옹, 코모로)에서 마다가스카르 방문력이 있는 엠폭스 해외 유입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 WHO는 기존 1b 엠폭스 발생 아프리카 국가처럼 성 접촉이 마다가스카르의 엠폭스 전파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엠폭스 발생이 확대됨에 따라 가정 내 전파 등을 통한 감염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고 평가함
- 국내에서 2형 엠폭스 환자는 '25년 27명, '26년 1명 보고, 1형 엠폭스는 보고되지 않음(2.11. 기준). 엠폭스가 아프리카에서 지속 유행 중으로 엠폭스 유행 지역 방문 시 모르는 사람과의 안전하지 않은 밀접 접촉(피부성)을 피하고 야생동물 접촉 및 섭취를 삼가며 오염된 물품은 만지지 말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권고

# 1.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방글라데시 Nipah virus infection in Bangladesh

## 발생 상황

'26.1.29. 방글라데시의 '26년도 첫 번째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사례가 확인되어 '01년부터 현재까지 총 348명 발생 보고됨(사망 250명, 치명률 72%)

- 방글라데시 라지샤히주(Rajshahi Division) 나오가온 지역(Naogoan district)에서 방글라데시의 '26년 첫 번째 니파바이러스감염증 확진 사례가 발생함<sup>1)</sup>(WHO, '26.2.6.)
  - 확진자(여성/40대)는 나오가온 지역 거주자이며, '26년 1월 21일에 발열, 두통, 근경련, 식욕 부진, 쇠약 및 구토 증상이 나타났고 이후 침 과다 분비, 방향 감각 상실, 경련 증상이 발생함
  - 1월 27일에는 의식 상실로 인한 상급 병원으로의 이송 절차가 진행되어 1월 28일에 입원한 후 당일 사망함. 입원 시 채취한 검체로 검사한 결과 1월 29일 니파바이러스 감염이 확진됨
  - 해당 환자는 특별한 여행력은 없지만 1월 5일 ~ 20일 동안 생 대추야자수액을 여러 번 섭취한 것으로 확인됨
  - 접촉자 조사 결과 총 35명의(가정 내 접촉자 3명, 지역사회 접촉자 14명, 의료관계자 18명) 접촉자가 확인됨. 그중 증상이 나타난 6명에 대해 니파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어 2월 3일 기준 추가 발생 없이 접촉자 관리가 진행 중임
- 방글라데시에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2001년에 처음으로 보고된 이후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348명(사망 250명, 치명률 72%) 발생 보고됨
  - 발생 시기는 계절적 패턴이 있어서 대추야자 수확 및 대추야자 수액 섭취 시기인 12월 ~ 4월에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그외 시기에도 발생 사례는 있음). 지역적으로는 중부 및 북서부 지역에서 주로 발생함
  - 전체 환자의 약 절반(162명)은 대추야자수액(원액 또는 발효액) 섭취력이 확인되었으며, 사람 간 전파에 의한 감염은 29% 수준으로 보고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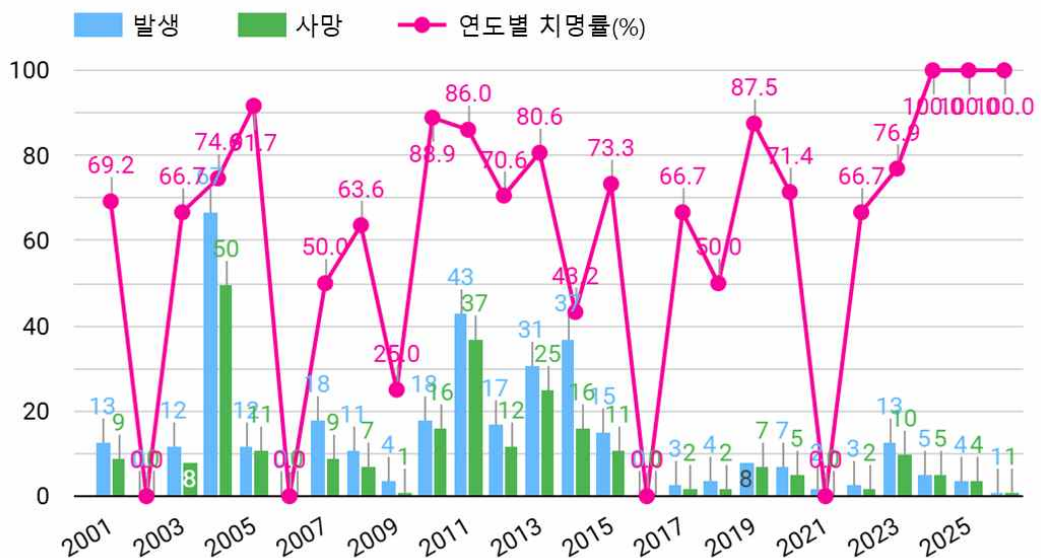


그림 1-1. '01년~'26년 방글라데시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발생 현황 (방글라데시 질병통제연구소, '26.2.10. 기준)<sup>2)</sup>

-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전 세계적으로 '98년 말레이시아에서 처음으로 보고된 후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인도, 필리핀에서도 보고되었고, '15년부터는 방글라데시와 인도에서 보고되고 있음<sup>3)</sup>
  - 인도에서 발생한 최근 사례는 서벵골주의 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2명이 1월 13일에 니파바이러스감염증으로 확진됐으며, 확진자의 접촉자 190명 이상을 파악하여 모니터링한 결과 전원 무증상 및 니파바이러스 검사 음성으로 확인됨<sup>4)</sup>

### 상황 평가

- 방글라데시 보건당국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 감시체계가 잘 구축된 국가로 확진자의 접촉자를 적극적으로 추적 조사하였고, 지역사회 경각심 제고 및 여행객용 시청각 자료 개발 등을 추진함
- WHO는 니파바이러스감염증 관련 방글라데시, 동남아시아 지역 및 전 세계 수준의 종합위험도를 모두 '낮음'으로 평가함
- 국내 니파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현재까지 없으며, 방글라데시, 인도 등 니파바이러스 감염증 주요 발생 지역을 방문할 경우 생 대추야자 음료 섭취나 (야생)동물과 접촉하는 행위는 삼가하고, 불필요한 병원 방문 자제와 함께 자주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함

- 방글라데시 보건당국은 이번 발생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함
  - 니파바이러스 확진이 확인된 즉시 1월 30일에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원헬스 전략 기반의 조사 추진
  - 확진자의 접촉자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증상 발생 여부 확인 등 모니터링 실시
  - 일선 의료 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역사회 니파바이러스 경각심 제고 캠페인 추진
  - 출입국 관리소 직원 및 여행객을 위한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주의 시청각 교육 자료 개발
- WHO는 니파바이러스의 위험성\*이 있지만 아래의 이유로 방글라데시의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종합 위험도를 '낮음'으로 평가함

\* 높은 치명률, 니파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특이적인 치료제나 백신이 현재 없음, 초기 임상증상이 비특이적인 관계로 조기진단 및 대응이 어려울 수 있음, 숙주 동물(과일박쥐)이 방글라데시에 서식하고 있으며 인체감염 사례가 계속 보고됨, 생 대추야자수액 섭취가 지속되고 있음

- 2016년부터는 연간 발생 수가 10명 미만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23년에는 예외적으로 14명 보고), 최근에는 사람 간 전파 사례가 예전보다 적게 발생함
- 방글라데시에선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인지 및 관리를 위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가동 중으로, 병원 기반 감시체계를 2006년에 이미 구축하였고,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가 각각 신속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니파바이러스 검사를 신속하게 실시할 역량도 확보됨
- 또한 WHO는 동남아시아 지역 및 전 세계 수준의 종합 위험도도 '낮음'으로 평가함
  - 지역 내 인접국(인도 등) 간 전파 사례가 보고된 적은 없지만 과일 박쥐 서식지 분포 등을 고려했을 때 위험성은 존재함. 다만, 인도는 과거 발생 경험을 토대로 강력한 대응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기존 발생국(방글라데시,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외 지역에서 발생 보고 없으며, 여행 등을 통한 해외유입 사례도 현재까지 없어서 국제적 확산 가능성은 낮음

-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니파바이러스 감염 보고 사례는 없음. 지난 1월 인도 서벵골주에서 니파 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이후 방글라데시에서 올해 첫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대비를 강화함(2.12.)<sup>5)</sup>
- 주요 발생 지역인 방글라데시, 인도 등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경우 생 대추야자 음료 섭취나 (야생)동물과 접촉하는 행위는 삼가하고, 불필요한 병원 방문 자제와 함께 자주 손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함

질병개요	니파바이러스감염증 <Nipah virus infection> <sup>6)</sup>
정의	니파바이러스(Nipah Virus) 감염에 의한 인수공통 감염병 - 병원체: 파라믹소바이러스과(Paramyxoviridae) 헤니파바이러스(Henipavirus)속 - 병원소: 과일박쥐(Pteropus 속)
발생지역	방글라데시, 인도 등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
감염경로	감염된 과일박쥐를 통해 사람이나 돼지와 같은 동물에 전파 이후 사람 간 전파 - 박쥐, 돼지 등 감염된 동물이나 체액(혈액, 소변, 타액 등)과의 직접적인 접촉 - 감염된 동물의 체액(감염된 박쥐에 의해 오염된 야자 수액 또는 과일 등)으로 오염된 식품 섭취 - 니파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 또는 체액(호흡기 비말, 소변, 혈액 등)과 접촉
치명률	40%~75%(유행지역의 감시 역량에 따라 상이)
증상	일반적으로 열, 두통,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 감염 후반 일부는 뇌부종이나 뇌염
진단	검체(혈액, 체액 등)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Real-time RT-PCR)
잠복기	4일~14일
치료	증상 발생 시 대증요법
예방	①개인위생수칙 준수, ②박쥐 및 병든 돼지와 접촉 피하기, ③박쥐 서식 지역 피하기, ④생 대추야자수액 등 박쥐에 의해 오염될 수 있는 식품 섭취 자제

1) WHO Disease Outbreak News | Nipah virus infection - Bangladesh (WHO, '26.2.6.)  
 2) 방글라데시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대비보드 (방글라데시 역학 및 질병관리연구소, '26.2.5.)  
 3) Fact sheets - Nipah virus (WHO, '26.1.29.)  
 4) WHO Disease Outbreak News | Nipah virus infection - India (WHO, '26.1.30.)  
 5) 인도, 방글라데시 여행 시 니파바이러스 주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검역 강화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26.2.12.)  
 6) 제1급감염병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 (질병관리청, '25.9.8.)

## 2. 영유아 분유에서 바실루스 세레우스 독소 검출, 여러 국가 Bacillus cereus toxin in infant formula in multi-country

### 발생 상황

특정 제조사의 영유아 분유 제품에서 바실루스 세레우스 독소(세레올라이드)가 검출되어 유럽 등에서 리콜 시행 중이며, 해당 제품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소아 위장관계 증상 사례가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영국, 브라질, 홍콩, 싱가포르에서 보고됨

- '25년 12월 바실루스 세레우스균이 생성하는 구토형 독소 세레올라이드(cereulide)가 일부 영유아 분유 제품에서 검출됨에 따라 예방적 리콜이 시행되었으며, 이후 '26년 1월에는 여러 국가에서 추가적인 리콜이 시행됨. 현재 리콜 조치된 분유 배치(로트번호: 동일 생산단위 식별번호)와 소아 위장관 질환 사례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임<sup>1)2)</sup>
- ※ 세레올라이드는 열에 매우 안정적인 독소로, 섭취 후 짧은 시간 내에 갑작스럽게 오심 및 구토를 유발함
  - 벨기에: 영아 5명의 임상 검체에서 세레올라이드 양성 확인됨. 5명 모두 리콜된 영유아 조제 분유를 섭취하였으며, 임상 경과는 양호함. 섭취한 조제 분유 5개 중 3개에서 세레올라이드 양성이 확인됨<sup>1)2)</sup>
  - 덴마크: 리콜된 제품 관련 영아 설사 사례를 보고받았지만 세레올라이드에 대한 검사가 시행되지 않아 증상과 분유 섭취 간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음. 리콜 확대 후 추가 보고는 없음<sup>1)2)</sup>
  - 프랑스: ①현재까지 영아 사례 11명(모두 입원)이 보고되었고, 모두 회복함. 11명 중 5명은 리콜된 영유아용 조제 분유를 섭취했으며, 나머지 6명은 섭취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음. ②원인불명 영아 사망 2명이 보고되어 조사 진행 중임. 사망한 영아 모두 리콜된 조제 분유를 섭취했지만 현재까지 분유와 사망 간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음<sup>1)2)</sup>
  - 스페인: 구토 증상 사례 8명이 보고됨. 오염 가능성이 있는 분유 제품을 섭취한 이력이 있고, 그중 5명은 입원함. 해당 사례는 실험실 검사로 확진되지 않아 임상 증상과 분유 섭취 간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음<sup>1)2)</sup>
  - 영국: 잉글랜드(24명), 스코틀랜드(7명), 웨일스(3명), 북아일랜드(1명), 크라운 디펜던시\*(1명)에서 리콜된 분유를 섭취 후 위장관 증상 발생 사례 총 36명이 보고되었으며, 검사 결과 세레올라이드가 확인됨<sup>1)2)</sup>
- \* 크라운 디펜던시(Crown dependencies): 영국 본토는 아니나 영국 왕실 직속 자치 섬 지역(Isle of Man, Jersey, Guernsey)
- 브라질: 2명의 영유아가 세레올라이드 오염으로 의심되는 분유를 섭취 후 입원함. 2명 모두 지속적인 구토와 설사 증상을 보였으며, 해당 제품 섭취를 중단한 후 임상적으로 안정됨<sup>2)3)</sup>
- 홍콩: 1세 여아가 '25.12.30. 리콜 조치가 시행된 분유 제품을 섭취한 후 지속적인 증상을 보여 '26.1.1. 섭취를 중단하고 증상이 호전됨. 검사 결과 해당 제품이 세레올라이드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됨. 추가 보고 사례는 없음<sup>2)4)</sup>
- 싱가포르: 태국에서 제조된 영유아용 조제 분유 제품 2개에서 세레올라이드 성분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리콜 조치함. 해당 제품은 이미 리콜된 영유아용 조제 분유와 동일한 원료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음. '26.1.29. 기준 관련 위장관계 증상 영아는 3명이 보고됐으며(모두 회복), 분유 제품 9개 배치 정보를 공개하여 리콜 조치를 시행 중임<sup>2)5)</sup>

## 상황 평가

- 유럽 질병예방관리센터(ECDC)는 오염 분유 제품 관련 지역 내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노출 가능성 ‘중간~높음’ 및 증상 영향 ‘낮음~중간’으로 평가하고, 특히 1세 미만 아동은 종합 위험도 ‘중간’으로 판단함. 또한 유럽 식품안전청(EFSA)과 함께 공동 신속유행평가를 추진 중임

- 바실루스 세레우스 독소 오염 분유 제품은 국내 정식 수입되지 않았으며, 현재 국내 유통 중인 분유 제품을 모두 검사한 결과 세레올라이드가 검출되지 않았음.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은 주로 오염된 음식을 통해 전파되므로 손 씻기, 음식 익혀 먹기, 물 끓여 마시기 등 위생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함

- ECDC는 해당 제품이 EU/EEA 및 기타 국가에 광범위하게 유통되어 노출 가능성을 ‘중간~높음’으로 평가함. 또한 독소 노출에 따른 위장관 증상 영향은 ‘낮음~중간’으로 평가함. 신생아 및 생후 6개월 미만 영아는 발병 가능성이 높고, 탈수 및 전해질 이상에 취약할 수 있어 1세 미만 아동에 대한 종합 위험도는 ‘중간’으로 평가함<sup>1)</sup>

- ECDC와 EFSA는 공동 신속유행평가(Rapid Outbreak Assessment, ROA)를 추진 중으로 국가별 사례정의, 실험실 지원 필요 여부, 검사 시행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ROA에 반영할 예정임. 또한 의심사례 발생 시 관련 정보 공유를 요청하고 ECDC 내 대응팀을 구성함<sup>1)</sup>

- EFSA는 2월 2일 유럽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영유아 대상 세레올라이드의 급성참조용량(Acute reference dose, ARfD)을 설정하고 발표함<sup>1)6)</sup>

- 홍콩 건강보호센터는 환아가 섭취한 분유의 로트번호를 확인하고, 리콜 대상 제품을 영아가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함. 또한 모든 의료진에게 세레올라이드 중독 의심 사례 신고를 요청함<sup>4)</sup>

- 싱가포르 식품안전청은 기존 리콜 외 태국에서 제조된 조제 분유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리콜을 실시함. 또한 감염병 관리당국과 협력하여 영유아 세레올라이드 중독 감시 활동을 진행 중이며, 영유아가 해당 제품 섭취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병원 진료를 당부함<sup>5)</sup>

- 바실루스 세레우스 감염증은 '25년 국내에서 표본 감시를 통해 총 11건이 보고됨('26.2.10. 기준).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기본적인 위생수칙을 준수(손 씻기, 음식 익혀 먹기, 물 끓여 마시기 등) 하도록 당부함<sup>7)8)</sup>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세레올라이드 관련 리콜 분유 제품\*은 국내 정식 수입되지 않았으며, 향후 해당 제품이 국내 수입신고될 경우 반려할 방침이라고 밝힘. 아울러 현재 국내 유통 중인 분유 제품 113품목(국내생산 56품목, 수입된 분유제품 57품목)을 전수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세레올라이드가 검출되지 않았음<sup>9)</sup>

\* 네슬레사(Nestlé), 락탈리스사(Lactalis), 사놀락사(Sanulac) 등의 분유 제품

질병개요		바실루스 세레우스 감염증 < <i>Bacillus cereus gastroenteritis</i> > <sup>8)</sup>
정의	· 바실루스 세레우스( <i>B.cereus</i> )가 만들어내는 장독소에 의해 설사나 구토를 일으키는 급성 위장관염, 제4급 표본감시 감염병	
병원체	· <i>Bacillus cereus</i> - 내열성 아포를 생성하는 그람양성 막대균, 통성 혐기성균 - 토양, 하수, 공기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 · 열에 안정적인 독소를 생산하여 구토, 복통, 설사를 일으킴	
병원소	· 토양, 환경에서 다양한 유기체, 음식(날 것, 말린 것, 가공품)	
감염경로	· 오염된 음식을 통해 전파	
잠복기	· 구도형 : 1~6시간 · 설사형 : 2~24시간	
주요증상 및 임상 경과	· 갑자기 발생하는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등이며 대체로 1일 이내 소실 · 구도형 : 구토와 매스꺼움이 주 증상이며, 발열 및 설사는 없음 · 설사형 : 복통, 설사가 주 증상이며, 구토는 적음	
진단	· 검체(대변, 직장도말, 구토물)에서 독소 유전자( <i>hbc</i> , <i>nheA</i> , <i>enFM</i> , <i>cyK2</i> , <i>becT</i> , CER)을 가진 <i>B. cereus</i> 분리 동정	
치료	· 대증 치료 : 경구 또는 정맥으로 수분, 전해질 보충 · 항생제 치료 : 필요 없음	
치명률	· 대부분 회복, 사망은 드물	
관리	· 환자 관리 : 격리 불필요 · 접촉자 관리 : 발병 여부 관찰	
예방	· 일반적 예방 -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안전한 음식 섭취 : 음식 익혀 먹기, 물 끓여 마시기 - 위생적인 조리하기	

1) Communicable disease threats report: 3. Bacillus cereus toxin in infant formula (ECDC, '26.2.6.)  
 2) Global infant formula recall linked to cereulide contamination with reports of infant gastrointestinal illness in Belgium, Denmark, France, Spain, United Kingdom, Hong Kong and Brazil (BEACONBIO, '26.2.8.)  
 3) Dois bebês são internados no DF após consumir fórmula infantil da Nestlé; confirma os lotes contaminados 브라질리아에서 네슬레 분유를 섭취한 영아 2명이 병원에 입원, 조사 진행 중 (Saude, '26.1.14.)  
 4) Toddler suspected of Cereulide poisoning caused by Bacillus cereus after consuming powdered infant and young children formula (홍콩 건강보호센터, '26.2.6..)  
 5) Recall of two additional infant formula products due to presence of cereulide toxin (싱가포르 식품안전청, '26.1.30.)  
 6) EFSA provides rapid risk assessment on cereulide in infant formula (EFSA, '26.2.2.)  
 7) 감염병포털: 표본감시 장관감염증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질병관리청, '26.2.10.)  
 8) 2026년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관리지침 (질병관리청, '26.1.2.)  
 9) 보도참고자료 | 유럽 등 회수중인 분유제품 정식 수입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처, '26.1.26.)

### 3.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영국 Norovirus infection in UK

#### 발생 상황

영국에서 현재 노로바이러스 활동성이 예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다른 연령대보다 발생 경향이 높고, 병원 내 유행도 절기 초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음. 현재 가장 우세한 노로바이러스 유전형은 GII.4형 및 GII.17형임

- 영국에서 현재 노로바이러스 활동성이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며, 특히 65세 이상 연령대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짐<sup>1)</sup>
- 이번 절기('25/'26) 노로바이러스 검사 양성 보고 건수는 총 5,752건으로('25년 27주~'26년 5주) 직전 5개 절기 평균(4,600건) 대비 25.0% 증가했고, 최근 2주간('26년 4주~5주) 보고 건수(921건)도 직전 5개 절기 동기간 평균(611건) 대비 50.6%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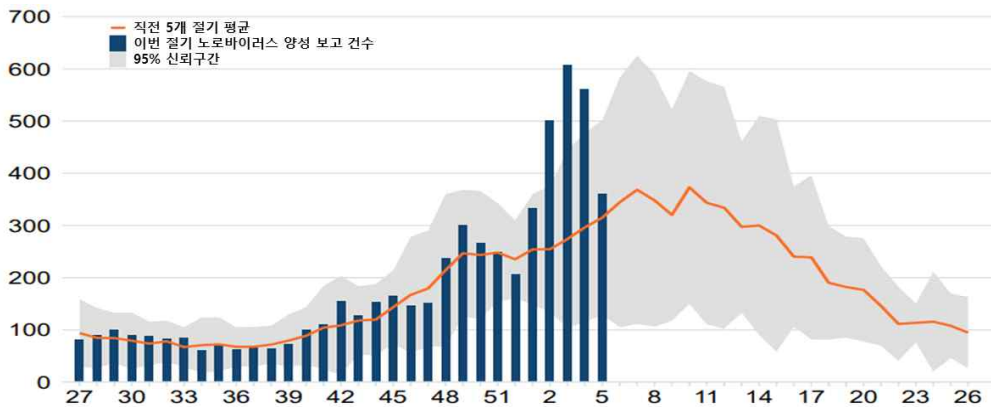


그림 3-1. '25/'26 절기 영국 주별 노로바이러스 양성 보고 건수 현황 (UKHSA, '26.2.1.)

- 연령대별 특성은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26년 5주차 기준 인구 십만 명당 노로바이러스 양성 보고 건수가 2.5건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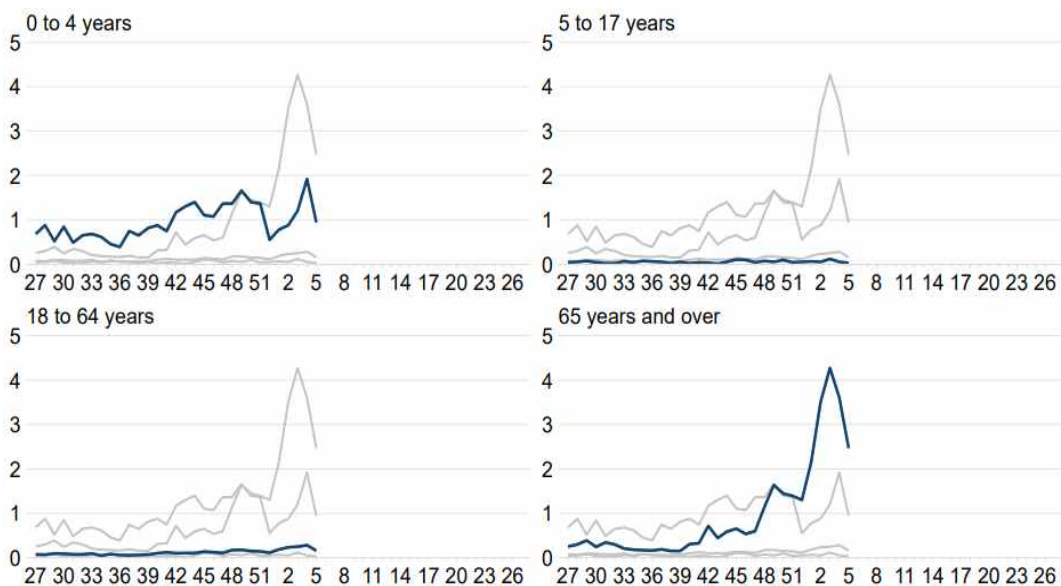


그림 3-2. '25/'26 절기 영국 연령대별 주별 인구 십만 명당 노로바이러스 양성 보고 건수 (UKHSA, '26.2.1.)

- 이번 절기 의료기관 내 노로바이러스 유행은 총 147건이 보고되어 직전 5개 절기 평균(197건) 대비 25.5% 감소함. 다만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주간 발생이 증가한 상황은 계속 유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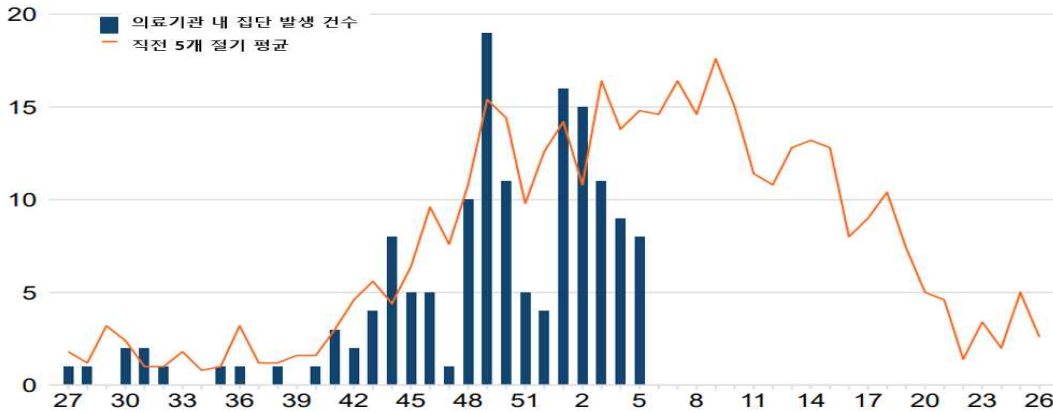


그림 3-3. '25/'26 절기 영국 병원 내 노로바이러스 유행(의심·확진) 보고 건수 현황 (UKHSA, '26.2.1.)

- 이번 절기 노로바이러스 유전형은 총 827건의 검체에 대해 분석 완료되었으며, 그중 85.4%가 GII형 유전자 그룹, 14.5%는 GI형 유전자 그룹, 0.1%가 혼합형(mixed)으로 GII형이 우세함
  - 세부 유전형은 GII.4 35.8%, GII.17 20.8%, GII.6 10.0%, GII.3 8.5%, GI.3 6.2%, GI.7 5.2% 등임
  - '24/'25절기 전체적으로는 GII.17형이 가장 우세했지만 '25년 초 GII.4형이 증가하기 시작해 해당 절기 끝 무렵에는 GII.4형이 가장 우세한 상황이었음. 이번 절기에는 GII.4형과 GII.17형의 동시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가장 우세한 유전형은 GII.4형임

### 상황 평가

- 영국 보건안보청(UKHSA)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노로바이러스 활동성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층과 병원에서 발생이 많은 상황을 고려해 취약 계층 내 노로바이러스 확산 방지 조치를 강조함
- 국내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는 '26년 5주 기준 709명으로 예년보다 높은 발생 수준을 유지 중임. 특히 0세~6세 영유아의 비중은 '26년 3주 기준 51.1%로 전주(217명, 39.6%) 대비 11.5%p 증가하여 영유아 및 관련 시설(어린이집, 키즈카페 등)의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함

- UKHSA는 영국에서 노로바이러스 활동성의 증가 시작 및 정점 시기는 절기마다 다르며, 최근 증가 경향에 영향을 끼친 요인으로 여러 유전자형의 동시 유행뿐만 아니라 기상 조건이나 검사·보고 체계의 변화 등의 복합적인 작용을 언급함<sup>1)</sup>
- 또한 65세 이상 고령층에서의 발생과 병원 내 유행이 많은 상황을 고려하여 취약 계층 내 노로바이러스 확산 방지 조치를 강조함<sup>2)</sup>
  - 노로바이러스 증상 발생 시 증상이 완전히 소실된 후 최소 48시간 병원이나 요양원 방문 자제
  - 어린이가 구토나 설사를 하면 증상이 사라진 후 최소 48시간 학교나 어린이집에 가지 말고 집에 머무르기
  - 따뜻한 비눗물로 손을 자주 씻고 가능하면 표백제 성분이 함유된 소독제로 표면 청소(알코올 젤은 노로바이러스를 사멸시키지 못함)

- 국내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는 작년 11월 1주('25년 45주)부터 지속 증가하여, '26년 3주\* 기준 617명으로 10주 연속 증가함. 특히, 전체 환자 중 0~6세 영유아의 비중이 51.1%로 전주(217명, 39.6%) 대비 11.5%p 증가하여 영유아 및 관련 시설(어린이집, 키즈카페 등)의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함<sup>3)4)</sup>

\* ('26년 5주 기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신고 환자 수 : 709명<sup>5)</sup>

- 손 소독제보다는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세척하여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히는 등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된 음식 섭취가 필요함
-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는 노로바이러스 의심 시 등원 자제와 환자 사용 공간 소독하고, 집단환자 발생 시 가까운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당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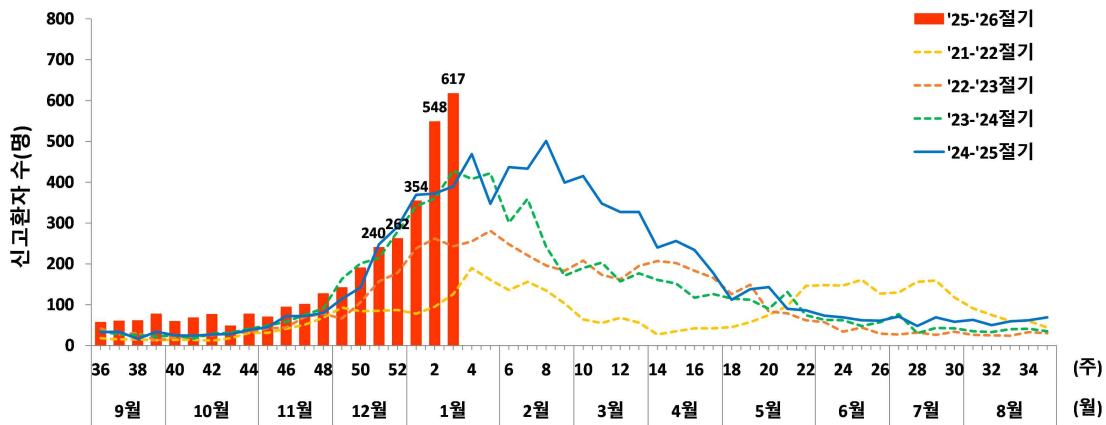


그림 3-4. 최근 5년(’21~’26년) 간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발생 추이(잠정) (질병관리청, ’26.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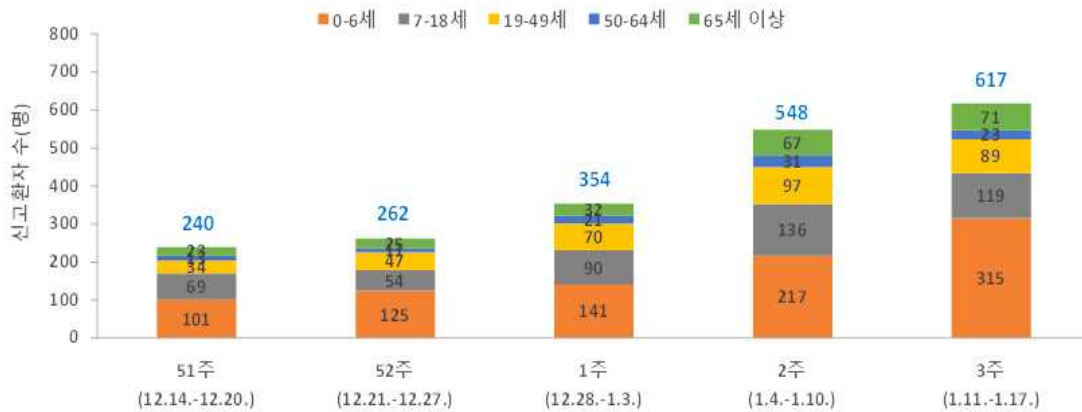


그림 3-5. 최근 5주간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연령별 발생현황 (질병관리청, ’26.1.23.)

1) National norovirus and rotavirus report, week 6 report: data up to week 5 (UKHSA, ’26.2.5.)  
 2) Norovirus cases now 50% higher than average for this time of year (UKHSA, ’26.2.5.)  
 3) 보도참고자료 |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10주 연속 증가,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 당부 (질병관리청, ’26.1.23.)  
 4) 2026년도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관리지침 (질병관리청, ’26.1.2.)  
 5)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 표본신고감염병 >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26.2.11.)

## 4. 엠폭스, 마다가스카르 Mpox in Madagascar

### 발생 상황

'25년 12월 마다가스카르의 최초 엠폭스 발생 보고 후 현재까지 Clade Ib 엠폭스 유행이 지속되어 '26.2.9. 기준 확진자 294명 및 의심 환자 235명이 보고됨. 또한, 주변 섬 국가(마요트, 레위니옹, 코모로)에서 마다가스카르 방문력이 있는 엠폭스 해외 유입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는 '25년 12월 30일에 자국 내 최초의 엠폭스 발생을 보고했고 현재까지 Clade Ib 엠폭스 유행이 지속 중임. '26년 2월 9일 기준 확진자 294명 및 의심 환자 235명이 보고됐으며<sup>1)</sup>, 확진자가 증가하다가 '26년 5주차에는 전주 대비 65% 감소함(88명→32명)<sup>2)</sup>
  - 보건부 발표(2.9.)에 따르면, 엠폭스 발생 지역이 확대되어 총 23개 주 중 16개 주에서 확진자가 보고되었으며 북서부 연안에 위치한 보에니주 마하장가 I 지역에서 대다수(65%, 192명)의 확진자가 보고됨. 전국 엠폭스 검사 누적 양성률은 51.74%이며 현재까지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음<sup>1)</sup>
  - Africa CDC 발표(2.5.)에 따르면, '25년 12월 ~ '26년 5주, 엠폭스 확진자 214명 중 남성이 43%를 차지하였으며 확진자 중 15세 미만 연령대는 없음. 전국 114개 보건 지역 중 20개 지역에서 보고됨. 성 접촉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 중인 것으로 추정되며, 확진자 중 해외 여행력을 보고한 사례는 없음<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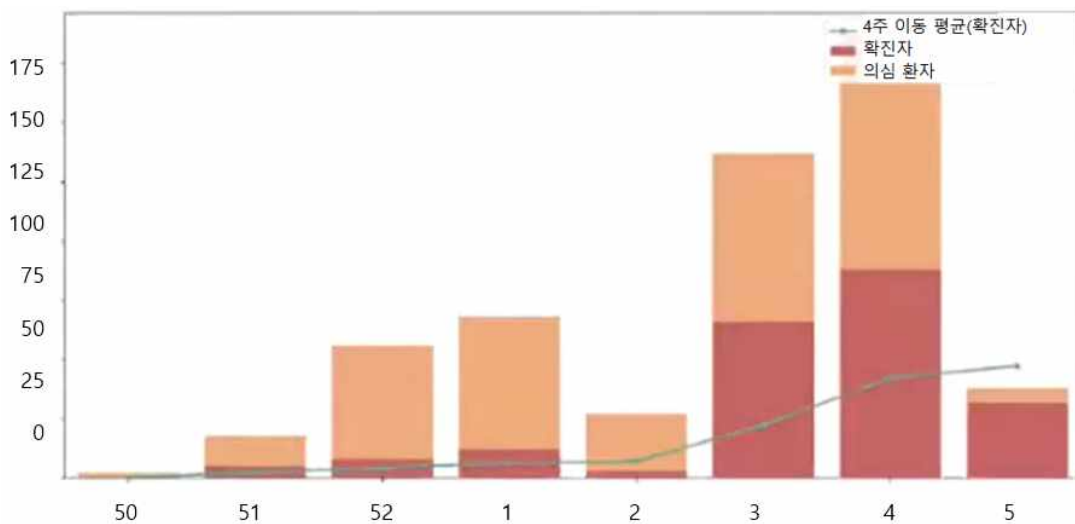


그림 4-1. '25년(50주)~'26년(5주) 마다가스카르 주별 엠폭스 발생 현황 (Africa CDC, '26.2.5.)

- 한편, 마다가스카르와 인접한 동아프리카 지역의 섬 국가(마요트, 레위니옹, 코모로)에서 마다가스카르 방문력이 있는 엠폭스 해외 유입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sup>3)</sup> 코모로 보건부는 자국 내 최초 엠폭스 유행을 선언(1.27.)하였으며 현재까지(2.5.) Clade Ib 엠폭스 확진자 14명(마다가스카르 유입 5명 포함) 발생을 보고함<sup>4)</sup>

\* 마요트(1.9. 1명), 레위니옹(1.23. 1명), 코모로(1.24. 4명, 2.4. 1명) (WHO, 2.6. 기준)



그림 4-2. 마다가스카르 및 주변 었폭스 발생 국가 (마요트, 레위니옹, 코모로) ('26.2.12. 기준)

### 상황 평가

- WHO는 동아프리카 내 기존 Clade 1b 었폭스 발생국처럼 성 접촉이 었폭스 전파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발생이 확대됨에 따라 가정 내 전파 등을 통한 감염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고 평가함
- 었폭스 유행 지역 방문 시 모르는 사람과의 안전하지 않은 밀접 접촉(피부성)을 피하고 야생동물과의 접촉 및 섭취를 삼가며 오염된 물품은 만지지 말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권고

- WHO는 마다가스카르의 었폭스 유행에 대하여 동아프리카의 기존 1b 었폭스 발생국처럼 성 접촉이 었폭스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었폭스 발생이 확대됨에 따라 가정 내 전파 등을 통한 감염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고 평가함<sup>5)</sup>. 또한 최초 확진 이전에도 이미 었폭스가 전파 중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현재 확인된 것보다 더 광범위한 전파가 진행 중일 수도 있음을 언급함<sup>5)</sup>
- 마다가스카르 보건부는 었폭스 확산 방지를 위해 다양한 대응조치를 하고 있음. 모든 었폭스 의심 환자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 조치하고, 확진자는 전파 가능한 기간 동안 격리 치료하고 있음. 또한 국민을 대상으로 었폭스 예방 조치(악수 포옹 피하기, 손소독제 사용, 자주 손 씻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함<sup>6)</sup>
- 국내에서 2형 었폭스 환자는 '24년 17명(국내발생 15명, 해외유입 2명), '25년 27명(국내발생 23명, 해외유입 4명), '26년 1명(국내발생) 보고되었으며, 1형 었폭스의 국내 발생 및 해외 유입 사례는 보고되지 않음(2.11. 기준)<sup>7)</sup>
  - 었폭스가 아프리카에서 지속 유행 중으로 었폭스 유행 지역 방문 시 모르는 사람과의 안전하지 않은 밀접 접촉(피부성)을 피하고 야생동물 접촉 및 섭취를 삼가며 오염된 물품은 만지지 말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권고함

1) 마다가스카르 보건부 face book | 었폭스 발생 관련 보도 (Ministeran'ny Fahasalalamam-bahoaka, '26.2.10.)

2) Africa CDC Weekly Press briefing (Africa CDC, '26.2.5.)

3) Global Mpox Trends (WHO, '26.2.6.)

4) Comoros reports first mpox outbreak (Outbreak News Today, '26.2.11.)

5) WHO Multi-country external situation report no. 62 (WHO, '26.1.23.)

6) MPOX à Madagascar : 229 contaminés, à la date du 1er février, 마다가스카르의 MPOX 감염자 수: 2월 1일 기준 229명 (현지 언론보도 MOOV, '26.2.3.)

7) 감염병 포털 감염병 통계 (질병관리청, '26.1.14.)

## 참고사항

### 전 세계 H5N1형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발생 현황('26.2.11. 기준)

구분	발생 상황
주간 신규 발생 (26.2.5.~2.11.)	· 발생 없음
'26년 발생 (2.11. 기준)	· 발생 없음
전 세계 누적 발생 ('03년~)	· 25개국에서 994명 발생(사망 477명, CFR 48.0%) - 미국(71명, 사망 1명), 캄보디아(90명, 사망 52명), 중국(57명, 사망 32명), 방글라데시(12명, 사망 1명) 등
주요기관 위험평가 결과	· WHO('26.1.22.) 및 ECDC('25.7.4.)는 H5N1형 AI 인체감염증으로 인한 일반인에 대한 공중보건 위험을 “낮음”, 직업적으로 노출된 사람의 감염 위험을 “낮음-중간”으로 평가함  · 미CDC('25.2.28.)는 H5N1형 AI 인체감염증으로 인한 일반인구(개인 및 집단)의 건강 위험은 낮으나, 감염된 동물이나 오염된 환경에 노출된 사람은 “중간-높음”으로 평가함

# 추가 정보 및 알림사항

## '25-'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안내문



### 대상

#### 어린이

2012. 1. 1. ~ 2025. 8. 31. 출생자



#### 임신부

임신이 확인된 사람



#### 65세 이상

1960. 12. 31. 이전 출생자



### 일정

#### 어린이

2회 접종 대상자 | 9. 22.(월) ~  
1회 접종 대상자 | 9. 29.(월) ~

#### 임신부

9. 29.(월) ~

#### 65세 이상

75세 이상 | 10. 15.(수) ~  
70 ~ 74세 | 10. 20.(월) ~  
65 ~ 69세 | 10. 22.(수) ~

→ 2026년 4월 30일까지 시행

### 백신

#### 3가 백신 1회 접종

단, 6개월 ~ 9세 미만 어린이 중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받은 자는 2회 접종

### 기관

####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단, 접종 가능 여부는 반드시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사전 확인 필요

### 이런 분들은 예방접종을 해서는 안 됩니다!

- ☑ 과거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중증(생명에 위협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 ☑ 인플루엔자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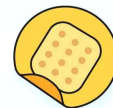
### 이런 분들은 예방접종에 주의해야 합니다!

-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6주 이내 길랭-바레 증후군의 과거력이 있는 사람
- ☑ 중등증 또는 중증 급성질환자는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접종 연기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

- ☑ 국소 이상반응 : 접종부위가 빨갱게 부어오름, 통증
- ☑ 전신 이상반응 : 발열, 무력감, 근육통, 두통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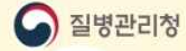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기면

- ☑ 경미한 이상반응은 예방접종 후 나타날 수 있으며, 1~2일 이내 호전됩니다
- ☑ 다만 증상이 심해지거나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 그 밖에 다른 증상이 나타난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5대 예방수칙

2024.7.26.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 5대 예방수칙



### 첫째, 기침에 절실천

- 호흡기 증상 있을 시 마스크 착용하기
- 기침할 때는 휴지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기침한 후에는 비누로 손씻기
-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 둘째,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 외출 전후, 식사 전후, 코 풀거나 기침·재채기 후, 용변 후 등
- \* 비누로 손 씻으면, 호흡기 감염병 5명 중 1명이 예방 가능



### 셋째,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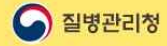
### 넷째,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

- 2시간 마다, 10분씩 환기
- 학교,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에서는 출입문과 창문을 동시에 열기



### 다섯째,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받기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겨울철 특히 조심!

# 노로바이러스 함께 예방해요!

## 노로바이러스 예방수칙



비누로 30초 이상  
손 자주 씻기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변기 뚜껑 닫고  
물 내리기



아프면  
집에서 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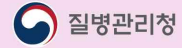
뽀뽀하게  
손 씻어요~!



### 니파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 Protect yourself from the Nipah virus and make sure to follow these essential steps!



###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유행지역을 여행 중이신가요?

Traveling to a Nipah virus-affected area?

-  **니파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 또는 사람의 혈액, 체액 등의 접촉을 통해 감염**  
 Nipah virus infection may occur through contact with the blood or bodily fluids of infected animals or humans.
-  **초기에는 발열, 근육통, 구토,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현기증, 졸음, 의식상태 변화 등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할 수 있음**  
 Early symptoms may include fever, muscle pain, vomiting, and cough. In severe cases, neurological symptoms such as dizziness, drowsiness, and altered mental status may develop.
-  **국내 상용화된 백신과 치료제가 없으므로, 예방이 가장 중요!**  
 Since there is no available vaccine or treatment in the country, prevention of disease is crucial!

###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이렇게 예방하세요! ✓

How to protect yourself from Nipah virus!



**과일박쥐, 돼지 등의 (야생)동물 접촉 주의**  
Avoid contact with fruit bats, pigs, or other wild animals.



**생 대추야자수액 섭취 금지**  
Avoid consuming raw date palm sap.



**아픈 사람과 접촉 삼가하기**  
Avoid close contact with sick individuals.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Wash your hands with soap for at least 30 seconds.



**오염된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Avoid touching your face with unwashed hands.

※ 여행 후 자신의 건강상태 14일간 관찰, 감염병 의심증상 있을 경우  콜센터로 전화하여 상담

※ Monitor your health for 14 days after travel. If you show any symptoms, call  for advice.